

인간의 눈은 항상 사물을 보는 각도와 빛에 의해 끊임없이 움직인다. 세계로 향해 열려있는 이 창을 통해 접수한 무수한 정보들은 시냅스란 신경전달물질에 의해 취사선택의 과정을 거치며 뉴런에 저장된다. 이제 인간은 눈 앞에서 펼쳐지는 영상을 통해 이성과 감각을 동원한 디지털 아트라는 새로운 분야를 접하게 되었다.

노치육의 디지털 아트는 그동안 세계와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 존재에 대한 정체성을 고려할 때 시간에 대한 보다 집요한 고찰이 두드러진다. 가장 가까운 주변의 일상에서 소재를 취했지만, 그의 작품 속에는 현실에 대한 심리적, 철학적, 예술사회적 암시와 발언이 개입되어 있다. 또 작품 속에 나타난 픽셀 이미지들은 현재의 시대상황을 극적이고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우연적이고 공허한 심리적 공간속에서 소외된 현대인의 모습 혹은 젊은 예술가의 자화상을 예술사회학적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한다.

디지털 아트 [녹색도시]는 일상적으로 조우하는 익명의 삶과 풍경이자 가식 없는 진솔한 도시적 풍경이다. 분주하게 오가는 도시인들의 삶은 누군가에겐 하루가 마무리되는 어떤 이에게는 힘찬 시작일 수 있는 이런저런 풍경

그 열기가 식기 전에 다시 달아오르는 현실풍경 너머로 들리는 깊은 존재의 아우성과 만난다.

픽셀 이미지로 조합된 영상 화면과 흐릿하게 이 장면 저 장면이 모자이크로 처리된 비디오를 보는 듯한, 거리 풍경은 그가 우리에게 내놓는 작업이다. 파리라는 예술도시를 대상으로 제작했지만 어느 나라의 분비는 도심 어느 곳의 길거리에서라도 만날 수 있는 익숙한 장면이다.

파리는 아마도 그가 벗어나고 싶지 않은 매력적인 작품대상이자 줄곧 삶의 무대다. 그 안에서 작가는 끊임없이 이질감을 느끼면서 주변인으로서 경계를 지으려고 한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그 중심으로 다가서려는 노력과 중심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존재할지도 모른다.

벗어나고 싶지 않음을 주변에서 서성이지만 디지털을 통해 드러내고 역설적으로 그들을 통해 그는 자신을 본다.

분주하게 오가는 자동차들과 쏟아져 나오는 인파들 잠시도 그곳에 머물지 않고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각양각색의 표정들이 나타났다 사라진다. 그들이 시간대로 나타나서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로 그곳에 유행처럼 나타났다 사라지는 모양새다.

인상주의 회화가 도시적 풍경을 재현하고 펼쳐 보였다면 노치옥의 디지털 아트는 미디어를 활용한 현대 도시적 삶의 정곡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다. 도시적 삶이란 분주하게 오고가는 자동차와 인파 속에서 우리가 사는 곳은 어디이며,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가 지나는 그 공간은 과연 내 삶의 장소인가 하는 그런 질문들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

이 낯선 만남 속에서 그는 속도와 그것이 연결된 시간을 경험한다. 그가 표현하고자 한 것은 속도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이의 틈인 것이다. 그것이 풍경이든 지나치는 사람들이던 자동차 불빛 속에 나타난 대상들은 그의 존재를 다시 각인시켜주는 또 다른 자아이다.

그러므로 노치욱의 [녹색도시]는 도시를 통해 바라보는 시간과 공간, 순간과 영원과 같은 상대적인 가치의 대비와 순환을 통해 현실을 직시하는 대상으로 여겨진다. 그는 현실을 응시하는 것이 아니라 영상을 통한 그윽한 관조의 시각으로 조망함으로써 그 진폭을 더욱 확장시키고 있다. 평범한 일상에서 새로운 일상의 풍경을 발견하고 치유와 사색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노치욱은 삶의 여러 가지 형태로 잡다하고 소소한 이야기와 일상적이며 때론 주관적이기도 하고 객관적이기도 한 다양한 삶의 측면들에 주목을 한다. 그리고 그의 작업은 각양각색의 삶의 문제들에 어떻게 디지털 아트에 접목시킬 것인지에 관하여, 즉 시시각각 변하는 삶과 그것을 풀어내 줄 예술의 관계에 관하여 끊임없이 천착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삶의 측면을 규정할 수 없듯이 다양한 삶의 이면을 담고자 하는 노치욱 자신의 예술 역시 하나의 모습이 아니라 다양한 미디어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음을 알고 있다.

그래서인지 형식이 조금 다른 [비 원근의 사물], [검정 사각형]이라는 디지털 작업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 두 종류의 디지털 영상은 관람객 참가형 설치작업으로 작품과 관람객이 서로 상호관계를 맺는 인터랙티브한 작업이다. 즉 관람객이 작품을 바라보고 있을 때만 비로소 모니터 화면에 상이 나타나 관람객과 작품이 서로 마주보는 상황을 연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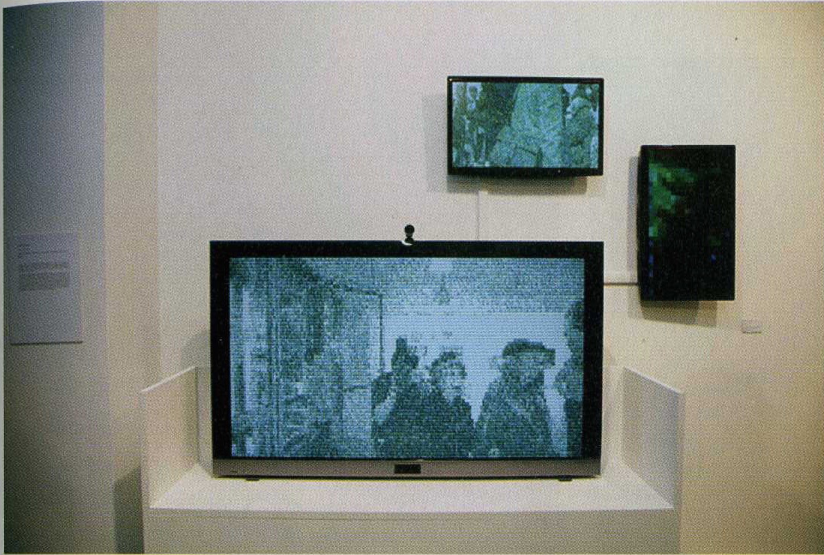
교감하는 상황을 통해 관객은 일정부분 작가와 소통하기 위해 객관적 입장에서 온전히 작품 자체에 몰입하는 것이다. 작가의 손을 떠난 영상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족적인 실체며 동시에 그것은 창작자와 관람자의 매개체로 기능하면서 해석하고 향유하는 것은 철저히 관객의 몫으로 남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그의 작품은 그 자체로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재하는 주변 사물과의 관계에서 인식되어 지는 것이며 끝없는 재관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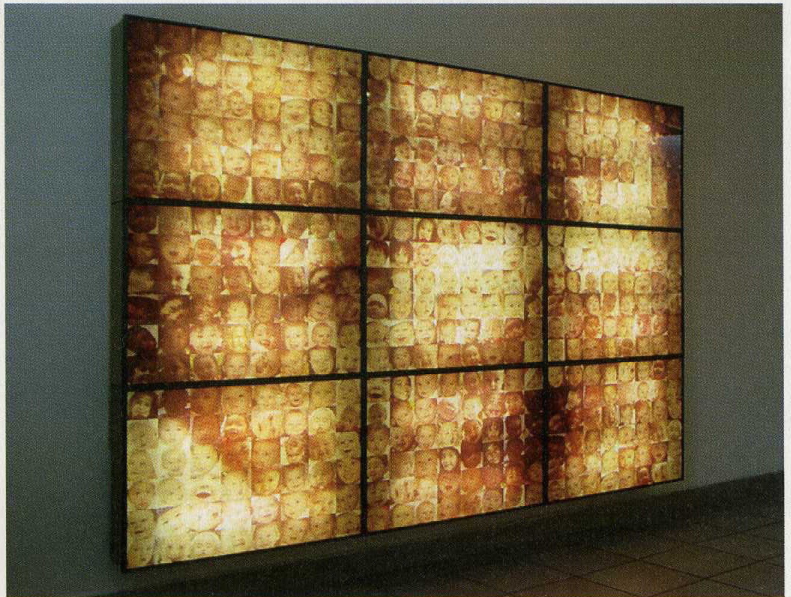
을 재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노치웁은 디지털 아트를 통해 재현과 변형이라는 방법으로 일상의 풍경을 제시해서 이 이미지들이 어떻게 다른 의미를 유발하며 관람자에게 일상적이지 않은 다른 가능성의 사유들을 부여하는지를 알아본다. 짧은 찰나의 순간일지라도 그런 일상의 여유를 통해서 그들이 향유하고자 하는 이상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 2013. 10.



Green City Paris, 2013
Installation interactive, 2 video



La pureté de l'enfance, 2008
Mosaic photography, 9 box light, 240 x 180 cm